



경희대학교

# 2014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11월 10일(일) 오후]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사회계 문제지는 총 1장 2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가 있다. 천지만물이 어떠한 형태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미움, 즉 당기고 밀치는 힘이 있어야 하듯이, 사회 역시 특정한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화와 불일치, 제휴와 경쟁, 바람직한 경향과 달갑지 못한 경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가 결코 사회적 부담이나 부정적인 사실인 것만은 아니다. 현실의 사회는 긍정적인 힘에서만 그리고 오직 부정적인 힘이 긍정적인 힘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회는 두 가지 범주의 이들 상호작용 모두의 결과이다. 얼마간의 알력, 내적 차이와 외적 다툼은 집단을 결속시키는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분화와 계층이 명확하고, 그 순도가 면밀하게 유지되어 온 사회구조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저 꽃은 왜 흙의 공중섬에 피어 있을까  
  
 해안가 철책에 초병의 귀로 매달린 돌처럼  
 도둑의 침입을 경보하기 위한 장치인가  
 내 것과 내 것 아님의 경계를 나눈 자가  
 행인들에게 시위하는 완곡한 깃발인가  
 집의 안과 밖이 꽃의 향기를 흠향하려  
 건배하는 순간인가

**[다]**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든, 세대 간 갈등이든 혹은 계층·이념·노사 간 갈등이든 모든 사회적 갈등은 곧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사회갈등지수가 지금보다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 ~ 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GDP가 7 ~ 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갈등을 얼마나 해소하고 관리하느냐가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소의 어떤 수석연구원은 “국책 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일단 벌어지면 사후적 수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  
 When class distinctions have disappeared and all production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vast association of the whole nation, the public power will lose its political character. Political power, properly so called, is merely the organized power of one class for oppressing another. If the proletariat during its contest with the bourgeoisie is compelled, by the force of circumstances, to organize itself as a class, if, by means of a revolution, it makes itself the ruling class and thereby sweeps away by force the old conditions of production, it will have swept away the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class antagonisms and of classes generally, and will thereby have abolished its own supremacy as a class. In place of the bourgeois society, with its classes and class antagonisms, we shall have an association, in which the free development of each is the condition for the free development of all.

<뒷면에 계속>

[마]

강아지는 어미에게 꼬리를 치며 아양을 떨고, 애완용 개는 먹을 것을 원할 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식사중인 주인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사람도 때때로 동료에게 이러한 수법을 쓴다. 동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을 때 그는 상대방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온갖 비굴한 아첨을 다 한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수한 사람들의 협력과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평생에 몇 사람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거의 모든 동물은 성장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 상태에서 다른 동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동료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다. 오히려 동료들의 이기심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서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교환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다.

[바]

오늘날 한국사회의 갈등 극복과 통합 증진은 국가나 사회의 어느 일방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밑으로부터의 거버넌스, 다시 말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주민 운동, 환경 운동, 지역 사회경제 운동, 소수자 운동 등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에 비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정치과정에 직접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시민참여의 기본 단위로 읍·면·동부터 시·군·구, 전국 단위까지 각각 포럼(공론장)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아래로부터 위로 전달되는 하의상달 체계를 이루도록 한다.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뒷받침을 받으며 지방자치에서 실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대의 정치제도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선거 경쟁에서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심사숙의를 통해 스스로 정책이슈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의제도가 갖는 참여의 제한성을 풀고,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의 확대와 포럼 참여 주체의 대표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평등주의적 관계를 유지하고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잘 반영된 정당성을 갖춘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고, 시민들이 갈등 사안을 둘러싼 결정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문제 I]

제시문 [가] ~ [라]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여 비교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한국사회에서 지역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로 지역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나타난다. 제시문 [마], [바]의 논지를 근거로 혐오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 방안 및 한계점을 논하시오. [701자 이상 ~ 8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I]

○○시와 △△공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KTX신축역사(驛舍) 및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시는 46억원, △△공단은 376억원의 공사(工事)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공사에 관한 참고 사항이다.

항목	지하차도	신축역사
당초 사업 목표	200 m	9,240 m <sup>2</sup>
단위 당 공사비	0.4억원/m	0.04억원/m <sup>2</sup>
공사비 부담	○○시와 △△공단이 항상 절반씩 부담	
		△△공단이 전담

만약 당초 사업 목표에 미달된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미달된 분량에 대해 지하차도의 경우 1.5억원/m, 신축역사의 경우 0.25억원/m<sup>2</sup>씩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단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자 ○○시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려고 한다. 이에 정부의 갈등조정협의회는 당초 사업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두 공공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조정안을 구상 중이다. 물론 지하차도든 신축역사든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하는 공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완공할 지하차도의 길이와 신축역사 면적을 각각 얼마로 하는 조정안이 총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재처럼 사업을 포기하려는 경우보다 총지출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풀이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요지를 평가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총지출 = 지하차도 공사 목표 미달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신축역사 공사 목표 미달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시가 지출한 공사비 + △△공단이 지출한 공사비